

書堂의 教育方法과 現代의 意義

崔 閔 鎔 *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書堂의 教育方法과 現代의 意義 |
| II. 書堂의 起源 및 性格 | V. 맺음말 |
| III. 書堂의 組織과 教育內容 | |

<국문 초록>

조선시대 서당에서의 교육방법은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눈높이를 맞추어 일대일로 완전학습 모형을 취하였다. 이는 서당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만들어주고, 학습자의 길잡이, 조언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공교육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서당식 교육방법을 응용하는 것도 교육적 의의가 있다.

서당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面·洞·里 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서당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교육적 자생력을 지니고 이어왔다.

서당은 訓長과 接長·學童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개인차와 그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놓고 주로 개인적 지도방법에 의하여 학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당에 똑같이 입학하였어도 그 능력에 따라 교육 내용과 진도도 달라 수준별 무학년제를 운영한 것이다.

서당의 교육 내용은 읽고 암송하여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講讀, 詩作活動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겸임교수 / chy60@hanmail.net

인 製述, 쓰기인 習字의 三教科이며, 이밖에도 놀이를 통하여 講讀外의 분야를 가르쳤다.

서당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講과 更辛苦法, 循繩尺法, 놀이를 통한 교육 방법 등이 있다. 講은 질의 응답법이며, 更辛苦法은 수준별 수업으로 스스로 문리를 트게 하는 방법이고, 循繩尺法은 반복을 통한 완전학습법이다. 이밖에 놀이를 통해 관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념과 등급, 칭호의 상호관계, 서열, 명승 고적, 풍토와 산물, 인물 등을 이해하였으며, 놀이의 과정 속에 표현력,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협동심과 단결력, 준법성, 애향심 등을 기르도록 했다.

현재의 교육구조는 개인의 수준이 무시되는 획일적 교육방법이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이런 상황에 학생들을 수업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한 방안이 서당식 교육방법이 아닌가 한다.

학계에 보고된 교수-학습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보아도 주로 수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지식과 인성에 있어 눈높이를 맞춘 개인별 교수-학습 방법은 적용된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서당식 교육방법과 현대의 효율적이라고 보고된 교수-학습 방법의 접목도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가르치는 데는 왕도가 없다. 다만 왕도로 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다.

【주제어】 서당의 교육방법, 講, 更辛苦法, 循繩尺法, 놀이를 통한 교육, 효율적인 학습법

I. 머리말

지금울 교육의 위기라고 한다. 공교육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대신 사설학원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인성교육은 멀리 가버린 지 오래다. 학부모들이 어찌하여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설학원으로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지 곰곰 생각해보는 때다. 교사들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을 수업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학동들에게 맨 처음에 『千字文』을, 그 다음으로 『童蒙先習』·『啓蒙篇』·『擊蒙要訣』·『明心寶鑑』·『通鑑』·『小學』·사서오경 등을 가르쳤다. 한 장소에서 7-8세부터 15-16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내용을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눈높이를 맞추어 일대일로 완전학습을 시켰던 것이다.

지금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당식 교육방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모두가 참가하고 모두가 성취하는 그런 수업이다. 그런 수업을 위해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마련해주고 학생의 길잡이, 조언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의 교수-학습 방법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당의 교육방법을 접목하는 것도 교육적인 의의가 있겠다.

II. 書堂의 起源 및 性格

서당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面·洞·리를 기본 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교육기관이다.

서당의 기원을 살펴보면, 서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교육기관으로 고구려 때 局堂이 있었다. 『舊唐書』, 「東夷·高麗條」에

고구려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하여 네거리에 큰 집을 짓고 경당이라고 불렀으며, 미혼자제들이 밤낮으로 이곳에서 책을 읽고 弓術을 습득하였으며, 교재로는 五經과 『史記』 및 『漢書』 등이 있었다.¹⁾

1) 『舊唐書』 卷199, 「列傳」 149, 「東夷·高麗條」 “高麗者出自扶余之別種也 其國都於平壤城 卽漢樂浪郡之故地也……俗愛書籍 至於衙門廡養之家 各於衙衢造大屋 謂之局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漢書范華後漢書……”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관학기관인 太學과 민간교육기관으로 扁堂을 두었다. 상류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官學이었던 太學에 대하여 경당은 평민층을 교육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전과 공술을 가르쳤다. 이러한 경당의 성격을 고려시대에는 서당과 寺觀講習, 鄉先生學이 대신하였다.²⁾ 조선시대에는 성종 때 처음으로 書堂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書堂은 조선시대에 널리 보급되면서 일본통치기를 지나 8·15 광복 후에도 전국 각 지방에 잔존하여 전래의 교육을 계속하여 왔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예절교육 및 한자 등을 가르치는 사설교육기관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서당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교육적 자생력을 지닌 교육기관이다.³⁾

서당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운영하고, 폐지할 수 있어 사설 교육기관적 성격을 띠었다. 지방 사족이나 향촌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운영상 국가의 도움 없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유대성이 강했다. 또한 초등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여 향교나 사학으로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 기관으로, 관학의 取才와 과거 응시를 위한 교육과 연결되는 초등단계의 교육으로 볼 수 있으며, 서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서민들에게 제도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서민 교육기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서당은 소농경제체제에서 가장 적합한 촌락내부의 교육제도였다.

2) 徐兢, 『高麗圖經』 卷40, 「儒學」 “……閭閻陋巷 間經館書社 三兩相望 其民之子弟未昏者 則群居而從師授經 既稍長 則擇友 各以其類 講習于寺觀 下逮卒伍童穉 亦從鄉先生學 於庠盛哉.”

3) 김승현, 「서당식 교육모형의 학교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9.

Ⅲ. 書堂의 組織과 教育內容

설립 및 운영이 자유로운 서당은 뜻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당을 설립하여 경영할 수 있는데 그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訓長自營形으로 훈장이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적으로 경영하는 서당이다. 둘째는 有志獨營形으로 洞中의 가세가 넉넉하며 뜻있는 자가 全經費를 혼자 부담하여 자기 집의 자제와 친척의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한 서당이다. 셋째는 有志組合形으로 마을의 유지 및 사람들이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여 조합원의 자제에게만 교육을 시키는 서당이다. 넷째는 鄉村組合形으로 마을 전체가 조합하여 훈장을 두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친 서당이다. 이러한 서당의 일반적인 조직은 訓長·接長·學童으로 구성되었다.

훈장은 學童를 가르치는 주체로 오늘날의 교사이다. 훈장의 자격요건은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학자나 과거에 낙방한 선비, 세력이 없는 窮士 등이었으며, 이들의 지식수준은 講讀의 경우 經書를 바로 풀이할 수 있는 훈장은 드물고 겨우 글 뜻이나 해석하는 정도였다. 製述은 四律이나 十八句詩를 읊는 것이 보통이나 벽촌의 훈장은 제술을 모르는 이가 많을 정도이다.⁴⁾

접장은 훈장에게 배우면서 훈장의 보조역할로 아래 학동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접장은 훈장의 지도를 받아 아동에게 강독을 시키고 이를 감독하며, 생활규칙이나 청소점검 등의 관리보조 역할까지 했다.

學童은 서당에서 훈장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 學徒, 書生, 生徒라고도 하였다. 學童들의 연령은 보통 7-8세에 시작하여 15-16세에 서당의 과정을 마친다. 그러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學童들도 많았기 때문에

4) 김영옥, 「서당교육의 분석적 고찰」,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8 참조.

無學年制였으며 越班도 가능했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講讀·製述·習字 등이다.

강독은 한문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서당의 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었다. 즉 강독은 釋音과 音讀을 반복암송 시켰으며, 이것은 학도들이 문장을 혼자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복암송 방법은 무릎을 꿇고 앉아 교본을 앞에 놓고 음률에 따라 읽는데 이때 지루함을 해소하고 졸음을 쫓으며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상반신을 전후나 좌우로 움직였다. 강독의 교재로는 서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千字文』·『童蒙先習』·『明心寶鑑』·『小學』 등이 핵심교재였으며, 『大學』·『論語』·『孟子』·『中庸』·『詩經』·『書經』·『周易』 등이다.

製述은 書·記·跋·祭文·訴諫·詩·賦 등을 저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로 詩文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제술 학습의 교재는 『唐音』·『聯珠詩』·『古文眞寶』·『杜律』 등이었으며, 교재 속의 시문을 낭송하는 한편 실제로 시를 짓는 훈련을 쌓았다. 전체적으로는 五言絶句·七言絶句·四律과 古風의 十八句詩·作文 등이 보통이고, 서당과 훈장의 품위에 따라서 각종 문체를 연습하기도 하였다. 제술은 평소에는 여가를 이용하여 학습하였으나, 주로 여름철에 행해지는 문예수업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을 夏課라고 하였다.

習字는 서당교육의 중요한 과목의 하나였다. 처음에는 楷書를 많이 연습시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行書, 草書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당에서의 습자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보다 문자이해를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습자의 평가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 평가하였다. 그 회수는 규모가 전시회는 연 2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주년 또는 2주년에 한 번 씩 작은 전시회를 가진 서당도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기타 서당에서는 위의 정규적인 과정인 강독, 제술, 습자 이외에 여가로 六甲·九九·지명·姓氏·관혼상제·世系·國號 등을 배웠다.⁵⁾

IV. 書堂의 教育方法과 現代의 意義

1. 教育方法

서당은 오늘날 우리 교실에서처럼 학습이 일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개인차와 그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놓고 주로 개인적 지도방법에 의하여 지도했다. 따라서 서당에 똑같이 입학했어도 그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도 다르고 진도도 달랐다. 이러한 서당의 교육방법은 講과 更辛苦法·循繩尺法·놀이를 통한 교수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講

講은 이미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을 질의 응답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면서 평가 방법이기도 하다. 講의 시기는 日講·旬講·望講·月講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대개는 일강 위주였다. 講의 방법은 背講과 面講이 있다. 배강은 암송낭독이고 면강은 교재를 보면서 읽는 臨文講讀이다.

講은 날마다 학생의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배우고, 그날의 학습량은 숙독하여 晝算을 놓고 읽는 수를 세었다. 보통 1회의 독서량은 ‘讀書百遍義自見’과 같이 百讀이었다. 1일의 학습량을 그 다음날 背誦하여 합격하면 새로운 학습으로 나갔으며, 불합격하면 합격할 때까지 반복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학업성취도가 달성될 때까지 반복시켜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완전학습의 형태이며, 합격여부에 따라 학습 진도가 달랐으므로 능력별 수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능력

5) 권오석, 「서당교재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10, 서지학회, 1994.
(Daum 문화원형에서 인용).

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랐으므로 무학년 교육제도를 사용하였으며 언제나 越班도 가능했다.

2) 更辛苦法

갱신고는 조선 英祖때 經筵官을 지낸 李象秀가 제시한 교육방법이다. 李象秀의 『晤堂集』 卷17, 「發蒙正軌」에

그렇다면 更辛苦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소아마다 능력에 맞는 책을 주고 법을 정하게 하며 句讀의 쉽고 알 만한 것은 반드시 스스로 풀게 하되 급히 풀지 않도록 하며, (풀이기) 맞지 아니하면 고쳐서 풀게 하고, 또 맞지 않으면 또 고치게 하라. 두세 번 하면 통하지 않음이 없다. 이와 같이 점차 익혀 가면 문장을 풀이하는 法例를 알 것이요, 반드시 그 줄 수를 감하여, 만약에 다섯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세 줄을 주는데 그치면, 능히 열두세 줄에 이를 것이요, 내일 배울 곳은 먼저 이해하게 하고 그 句讀를 정하여 한번 통한 뒤에 와서 배울 것을 허락하고, 알고는 있으나 싫어하고 思考하지 않는 자는 물리치고, 다시 譴責하고 벌하여 따르게 하는데 힘써서 반드시 스스로 터득하게 하면, 마침내 이도에 도달할 것이다.⁶⁾

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능력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둘째, 학습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셋째, 자학자습과 반복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해석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넷째, 적당한 학습량을 주어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다섯째, 철저히 예습을 하도록 한다.

6) 李象秀, 『晤堂集』 卷17, 「發蒙正軌」 “然則欲其更辛苦奈何 授小兒書先定法 凡句讀淺易可知者 必令自釋耳勿遽爲之釋 不中則令改之又中不令改之 再三則無不通 如是漸馴稍知釋文法例矣 必減其行數 如勝五行者止授三行 至能十二三行 將能明日所當受者使先理會 定其句讀一通然後許來受有決定 可知而因厭煩不肯尋思者斥之 使復譴罰隨之務必自得 乃已果能此道矣”

여섯째, 알고 있다고 자만하여 노력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갱신고법은 학생의 능력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여 학습목표를 정하고 적당한 학습량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문리가 트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J.M Keller가 주장하는 ARCS이론 중 관련성(Relevance) 및 자신감(Confidence)·만족감(Satisfaction)⁷⁾의 전략 요소와도 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循繩尺法

循繩尺法도 李象秀가 제시한 교육방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승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맞는 책을 주고 먼저 법을 정하여 반드시 정통하게 된 후에 가르치고, 不通하면 물리치고 다시 읽게 하여 나아가게 하며, 2일에 걸쳐 重犯하는 자는 반드시 벌하되, 미봉책을 쓰지 않도록 하며, 해석까지 외게 한다. 외울 때는 반드시 돌아앉아 외게 하고, 글을 배울 때는 반드시 꿰어 앉아서 서상대로 글자를 짚어가며 하루의 읽는 횟수를 정하고, 한번에 읽을 편수를 정하여 어기는 자는 벌하라. 가령 20편을 규정하고 이 수가 못 되어도 아니 되고 넘어도 아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정해진 한도를 넘기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미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엄하게 하여 어김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승척이다.⁸⁾

이를 요약하면 아이에게 알맞은 교재를 주고 학습목표를 정하며, 전

7) 관련성의 하위전략 중 ‘목적지향성과 모티브일치’의 요소, 자신감의 하위전략 중 ‘학습요건 및 개인적 통제’의 요소, 만족감의 하위전략 중 ‘외제적 보상’의 요소와 통하는 방법이다.(최운용, 「ARCS모델을 적용한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7-18 참조).

8) 李象秀, 『晤堂集』 卷17, 「發蒙正軌」 “欲其循繩尺奈何 授小兒書先定法 必誦念精通然後授之 不通則斥令改讀而進 二日重犯者 必罰無姑息 且并誦其釋可也 誦必背坐 受書必跪 必以搥按字 一日定讀幾巡 一讀定幾遍 違者罰 假如二十遍爲程則不及數固不可 過數亦不可也 何也 一越程限有過 必有不及也 嚴爲之制 不許有違 此訓蒙之繩尺也”

일의 수업내용을 복습하여 완전학습이 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능력에 맞는 학습량을 주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로써 보면 서당은 어린 아이를 가르칠 때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암송과 반복학습을 통한 완전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놀이를 통한 教育方法

서당에서도 놀이를 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실내놀이로는 昇脚圖놀이·고을모듬놀이·覽勝圖놀이·曹操잡기놀이·刻爛賦詩와 火繩作·初中終놀이·책거리·對句농기·字맞히기·산수놀이 戲談·掛짓기·鬪韻 등이 있으며, 실외놀이로는 가마싸움·원놀이·投壺 등이 있다.⁹⁾

昇脚圖놀이는 조선시대 가정에서 젊은이들의 향학심을 자극하고 관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념과 등급, 칭호의 상호관계, 서열 등을 익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놀이방법은 벼슬 자리를 적어놓고 주사위를 던져 벼슬을 오르고 내리고 유배도 당하며 9품에서 1품까지의 곡절 많은 자리를 거치는데 풍상도 겪어가며 빨리 영의정에 오르는 겨루기 놀이다.

고을모듬놀이는 승람도 놀이를 하기 앞서, 10세 정도까지 서당에서 했던 것이 고을모듬놀이이다. 이것을 통해 사전적 훈련을 쌓은 뒤 본격적으로 승람도 놀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놀이 방법은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약속에 따라 미리 정한 한문책의 아무 쪽이나 펼쳐 놓고 그 쪽에 들어있는 글자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을 이름이 될 만한 것을 골라 기억해 두었다가, 책을 덮은 뒤에 나머지 글자를 맞추어서 고을 이름을 종이에 적고 뒤에 계산해서 많이 쓴 쪽이 이기게 된다. 더 나아가 고을의 소재지 등을 따져 물어, 점수를 매기고 틀리면 감점을 한다. 또 고을 이름은 반드시 당시의 행정지명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옛 지명을 쓰면 감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고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고을의 시대적

9) 김동구, 「조선시대 서당에서의 놀이가 갖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14-39.

변화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놀이이다.

覽勝圖놀이는 주로 청소년과 유림층에서 행해졌던 놀이로 ‘승람도 놀이’라고도 한다. 詩人·閑良·美人·和尚[중]·農夫·漁夫 등 여섯 부류로 나눈 여행객이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는데, 서울을 떠나 다시 서울로 가장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놀이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명승고적을 익히며 풍토와 산물, 인물 등을 이해하게 되는 교육방법이다.

曹操잡기놀이는 여러 사람이 등글게 앉아, 중국 삼국시대 魏나라의 奸雄 조조를 찾아내어 벌을 주는 놀이로, ‘도둑놈잡기’라고도 한다. 인원수대로 종이쪽지에 劉玄德·曹操·孔明·韓信·張良·趙子龍·關羽 등의 이름을 써서 뽑게 하고, 이들 가운데서 유현덕의 쪽지를 가진 사람이 명령관이 되어 휘하 장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른다. 가령 “조자룡아, 너는 빨리 간적(奸賊) 조조를 붙잡아 오너라.” 하면, 조자룡의 쪽지를 가진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고 나서, 조조의 쪽지를 가졌으리라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낸다. 만일 바로 맞히면 조조패의 주인공이 처음 정한 대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 맞히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조자룡이 상대가 요구하는 벌을 받는다. 이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성을 키울 수 있으며, 자기의 역할에 맞는 몸짓이나 표정을 짓기에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刻燭賦詩와 火繩作은 燭에 금을 그어 다 탈 때까지 시간을 다투어 시를 짓는 速作詩 짓기 놀이이다.

初中終놀이는 동료들간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시조의 짝맞추기 놀이이다. 이 놀이를 통하여 시조나 당률 삼자시 등의 형식, 내용 등을 익힐 수 있으며, 편을 나누어 하기 때문에 협동심도 기르는 효과가 있다.

책거리는 학동이 책 한 권을 다 떴을 때 훈장과 동료들에게 한턱을 내는 일이다. 이 놀이는 훈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었기에 스승에 대한 존경과 은혜를 알게 하는 인성교육의 장이다.¹⁰⁾

이밖에도 실내놀이로는 對句농기·字맞히기·산수풀이 戲談·掛짓기·

鬪韻 등이 있으며, 실외놀이로는 가마싸움·원놀이·投壺 등이 있다. 실외놀이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협동심과 단결력, 준법성, 애향심 등을 기르도록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서당교육은 학습자의 개인차와 그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놓고 주로 개인적 지도방법에 의하여 학습이 이루어진 셈이다. 따라서 서당에 똑같이 입학했어도 그 능력에 따라서 교육내용도 다르고 그 진도도 달라졌다. 이와 같이 서당교육은 철저한 개별학습에 의하여 개인별 학습진도를 점검한 것으로 본다면 무학년제를 운영하였으며, 언제나 유급 월반도 가능한 체제였다.

서당에서의 교육 내용은 읽고 암송하여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講讀, 詩作活動인 製述, 쓰기인 習字의 三教科이며, 이밖에도 놀이 학습을 통하여 講讀外의 분야를 가르쳤다. 즉 놀이를 통해 관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념과 등급, 칭호의 상호관계, 서열, 명승고적, 풍토와 산물, 인물 등을 이해하였으며, 놀이를 통해 표현력,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협동심과 단결력, 준법성, 애향심 등을 기르도록 했던 것이다.

서당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講과 更辛苦法·循繩尺法·놀이를 통한 방법 등이 있다.

2. 現代的 意義

학교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신장시키며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은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육 구조나 현재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구조의 틀에서는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 교육이나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이 주가 된다. 따라서 서당식 교수-

10) 김동구, 위의 논문, pp. 14-30 참조.

학습 방법을 고찰하여 현대의 교육에 접목하는 것도 교육적 의의가 있겠다. 이를 위해 서당식 교육 중 개별학습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적 의의를 살펴본다.

1) 개별학습 중심

교육이 오늘날과 같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기 이전에는 교육활동은 개별교수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李星鎬는 개별화 교수의 의미를 “개별화 교수(individualized instruction) 또는 수업의 개별화란 개개 학습자의 독특한 요구와 독특한 특성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계획적으로 선택·고안된 학습활동에 학습자가 종사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 수업체제이다. 여기에서 학습자의 독특한 요구와 독특한 특성은 곧 학습자의 개인적 요구 또는 특성으로서, 흔히 일컬어 개인차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화교수란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수업을 실천하는 변별적인 수업방법이다.”¹¹⁾ 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개인차가 생기는가? 이성호는 辛世浩(1974)가 제시한 6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습자 개인들은 서로 다른 학습 진도를 보인다.
- ② 학습자 개인들은 공부하는 기능(skill)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 ③ 학습자 개인들은 서로 꼭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 ④ 학습자 개인들은 서로 다른 흥미 경향을 가지고 있다.
- ⑤ 학습자 개인들은 서로 다른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다.
- ⑥ 학습자 개인들은 특정시점에서 꼭 같은 학습 준비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¹²⁾

그렇다면 교사가 학습자를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성

11) 李星鎬, 『교수방법론』, 학지사, 2002, p.84.

12) 李星鎬, 위의 책, pp. 84-85.

호는 학습목표, 학습과제의 설정과 선택, 학습자료나 설비의 선정, 학습 환경이나 교수방법의 선정,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형성 양태, 학습을 해 나가는 속도와 장소 등¹³⁾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개별화 교육의 형태는 학급 집단편성 중 학년제 편성이었다. 그러나 동일 학년에도 학습자 간의 개인차가 커서 이를 보완한 것이 능력별 학급편성과 교육과정 학급편성이었다. 전자는 우열반이 대표적이며 후자는 진학반, 취업반, 또는 인문계반, 자연계반 등으로 나누어 학급을 편성한 것 등이다.

능력별 학급편성은 한 학습자가 우수하다고 했을 때, 그가 모든 교과목에 전부 우수할 수는 없으며,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 항속적이지 못하고 찰나적일 수도 있으며, 열등학습자가 언제나 모든 교과에서 항속적으로 열등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여 우열반은 교사들의 행정적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 개인차에 대처하는 교육을 할 때는 A.C. Eurich(1962)가 밝힌 다섯 가지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 ① 학습자는 무엇을 배우든지, 그가 스스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 배워 줄 수 없다.
- ② 개개 학습자는 자신의 속도대로 배운다. 그리고 모든 연령의 개개 학습자마다 배움의 속도는 다양하다.
- ③ 학습의 각 단계마다 즉시적으로 강화될 때, 학습자는 더 많이 배운다.
- ④ 각 단계의 부분적인 완성보다는 각 단계의 완전 학습을 할 때, 전체 학습을 보다 의미 있게 성취한다.
- ⑤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 자신에게 주어질 때, 그는 더 강한 학습 동기를 형성한다.¹⁴⁾

우리 선조들은 이미 개별화 교수법을 알고 이를 교육에 적용하였으

13) 李星鎬, 위의 책, p.84.

14) 李星鎬, 위의 책, p.88.

니, 그것은 서당식 교수-학습 방법이다.

서당은 연령이나 학습능력 등에 다양한 개인차를 보이는 학생 개개인에게 그에 알맞은 학습량을 주고 개개인의 반복학습을 통해 문리가 트이도록 했다. 이러한 점 등은 현대의 교육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즉 학습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활동을 제시하며, 학습자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한문과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 때부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선택 교과로 바뀌다보니 고등학교에서는 한문에 관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과 한문 수업을 한다. 고등학교의 한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1년만 한문 수업을 이수한 학생, 2년만 이수한 학생, 3년을 이수한 학생, 전혀 이수하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된다. 보통은 2년을 이수한 학생이 많은데, 3년을 모두 이수했거나 전혀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중학교 때 전학을 다닌 학생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의 한문에 대한 사전지식도 각양각색이다. 이렇게 사전지식이 다른 학생들에게 개별화 학습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문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일찍이 한문과목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 개별 학습의 적용은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업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한문과목에 흥미를 느껴 수업에 열중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의 한문에 관한 사전지식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사전지식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사전지식에 관한 자료를 과제로 주고 자율학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 다음, 수업시간에 서당식 ‘講’의 방법처럼 확인을 한다. 확인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칭찬이나 용기를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다음 본시 학습을 진행하며, 다음 차시의 수업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한문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수업의 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3. 一字千金

手不釋卷 愚公移山 青出於藍 東手無策 羊頭狗肉 小貪大失 老馬之智
 鷄卵有骨 刻舟求劍 咸興差使 脣亡齒寒 於異阿異

새로 나온 한자 :

釋(석)풀다 愚(우)어리석다 藍(람)쪽 束(속)묶다 策(책)피 貪(탐)탐하다
 智(지)지혜 刻(각)새기다 舟(주)배 劍(검)칼 咸(함)다 差(차)어긋나다
 脣(순)입술 阿(아)아침하다 裏(리)속 - (주)천재교육

학생들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한자이다. 그들은 가장 기초적인 한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새로 나온 한자로 제시하지 않은 한자 모두를 다음과 같은 과제물(일부만 제시했음)로 제작하여 부여할 수 있다.

手											
손 수											
不											
아니 불											
卷											
책 권											
公											
공변될 공											
移											
옮길 이											

이 과제물의 빈칸에 자신이 모르는 한자를 써서 한자를 익히게 하는 방법이며, 수준에 따라 모두 익히는 학생도 있고, 하나 둘 정도만 외워도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며, 모두 알고 있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하면 학습자 각각의 사전지식을 알 수 있으며, 그에 알맞은 교육계획을 세

우고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개인차를 배려한 학습은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차에 알맞은 학습목표를 각자 설정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어 각 학습자의 능력에 맞도록 학습하게 한다. 학습 진행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어 자신의 속도대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며,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따른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만이 그들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

2) 교수-학습 방법

서당의 교육방법은 講과 更辛苦法·循繩尺法·놀이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등이다. 이 방법들 중 놀이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이며 완전학습 방법이다. 학동의 개인별 지도에는 이미 인성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놀이를 통한 교수-학습법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변화를 주어 지루함을 막고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한문과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송영일은 한자및 한자어는 ‘字源 教授-學習法’·‘NIE 教授-學習法’·‘팀티칭 教授-學習法’·‘新媒體活用 教授-學習法’을, 漢詩의 教授-學習法으로는 ‘協同 教授-學習法’·‘誦讀 教授-學習法’·‘創意 教授-學習法’·‘新媒體活用 教授-學習法’을, 散文 教授-學習法으로는 ‘構造 分析法’·‘主題探究 學習法’·‘作文 學習法’·‘신매체 활용 教授-學習法’을, 經書 教授-學習法으로는 ‘問答 學習法’·‘思考 學習法’·‘主題 探究 學習法’·‘新媒體活用 教授-學習法’¹⁵⁾ 등을 제시했다. 또한 단계별로 지도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초·원

15) 송영일, 『漢文教育論』, 도서출판 장서원, 2002.

리 단계 한자 교육법으로는 ‘부수 학습법’·‘쓰기 학습법’·‘읽기 학습법’을, 분석·응용 단계 한자 교육법으로는 ‘자원 학습법’·‘조어 학습법’·‘마인드 맵 학습법’·‘NIE 학습법’을, 통합 단계 한자 교육법으로는 ‘탐구 학습법’·‘창의 교수-학습법’·‘협동 학습법’·‘팀 티칭 학습법’·‘CYBER 학습법’¹⁶⁾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에 발표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한자·한자어 분야 :

「漢字語 教授·學習 方法에 對한 研究」(元容錫, 제2집), 「視聽覺을 利用한 漢字教育」(余美玉, 제3집), 「멀티미디어를 活用한 效果의인 漢字 學習指導 研究」(成澤泳, 제6집), 「效果의인 漢字漢文教育의 方法」(裴源龍, 제4집), 「옛날이야기와 수수께끼를 통한 漢字·漢文 學習」(李福揆, 제5집), 「漢字語 意味 學習을 통한 漢字指導 方法」(金美慶, 제7집), 「VTR과 MIND MAP을 活用한 部首 指導 研究」(黃炳鎬, 제11집),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部首 및 聲部 活用 연구」(이영수, 제12집), 「창의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자 지도방안 연구」(金鍾運, 제14집), 「活用中心 初等學校 漢字 指導方案」(南守極, 제14집), 「字源 漢字 教授·學習 研究」(宋永日, 제16집), 「中國에서의 字源을 活用한 漢字 教育方法」(楊沅錫, 제17집), 「字源을 活用한 漢字 教授學習方法 研究」(한연석, 제17집), 「놀이學習 資料를 活用한 初等學校 漢字 教育의 多樣한 方法」(金蓮玉, 제17집), 「傳統 蒙學教材를 活用한 效率의인 漢字學習 方法 考察」(朴光敏, 제18집), 「開化期 教科書의 漢字·漢字語 教授-學習 方法」(남궁원, 제18집), 「新聞·放送을 活用한 漢字·漢字語 教授-學習 方法」(金載瑛, 제18집), 「文化遺産을 活用한 漢字·漢字語 教授-學習 方法」(金恩暻, 제18집), 「初等學校 漢字 指導 段階와 方法」(陳哲鏞, 제18집), 「幼兒 漢字 教授 學習 方法」(李禎軟, 제18집).

* 한문 분야 :

「漢文 讀解力 伸張을 爲한 段階的 文型 指導 方案」(卞慶安, 제1집), 「漢文科 教授·學習 指導 方法」(裴元龍, 제3집), 「視聽覺 資料의 活用을 통한 ‘漢文’ 讀

16) 송영일, 『漢字 教授 學習 方法과 評價論』, 도서출판 장서원, 2001.

解 指導 效率化 方案」(柳修賢, 제3집), 「虛字指導를 통한 漢文 讀解力 伸張에 관한 研究」(張銅禧, 제4집), 「傳統文化의 理解를 위한 效果의인 教授-學習方法 研究」(金國會, 제10집), 「고등학교 韓文과 韓文 소설 교수 학습 모형 연구」(盧仁淑, 제10집), 「地名을 活用한 漢文 授業案 研究」(송영실, 제12집), 「漢文小說 教授-學習 方法의原理와 模型」(宣株源, 제15집), 「漢文 散文領域 教授-學習 方法의 原理와 模型」(沈載京, 제15집), 「ARCS모형을 活用한 漢文科 教授-學習方法 研究」(崔閔鎔, 제16집), 「抱負水準 伸長을 위한 漢文科 教授學習方法 및 適用 效果」(이미애, 제19집), 「讀者 反應 中心 教授-學習 模型」(金載瑛, 제19집), 「媒體를 活用한 漢文科 教授-學習法」(金東奎, 제20집).

* 한시분야 :

「漢詩 鑑賞指導의 一斑」(金相洪, 제1집), 「漢詩의 指導方法에 관한 研究」(李鍾福, 제2집), 「近體詩의 平仄譜 教授·學習 方法」(金相洪, 제2집), 「漢詩 教育의 必要性 및 指導方案」(朴美惠, 제9집), 「漢詩 教授-學習의 原理와 模型」(金鍊秀, 제15집).

또한 한국한문교육학회에 발표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한자·한자어 분야 :

「‘광수생각’으로 漢字·漢文익히기」(전용한, 제15호), 「漢文教科教育에서 ‘漢字의 짜임’ 指導方法의 一考察」(宋秉烈, 제16호), 「漢字의 학습효과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양희용, 제26호).

* 한문분야 :

「漢文科 學習의 傳統的 朗讀法에 對하여」(백원철, 제11호), 「漢文教育에서의 主題 指導의 方向」(沈浩澤, 제12호), 「實業系列 漢文教育의 內實을 위하여」(오현정, 제15호), 「漢文教育에 있어 하이퍼미디어의 활용」(이태희, 제15호), 「漢文科에 適用possible한 웹基盤授業과 問題中心學習」(白光鎬, 제15호), 「인터넷을 통한 漢文科 文學 教育」(南恩璟, 제20호), 「漢文科 教授·學習 方法의 摸索」(金經益, 제20호), 「인터넷을 活用한 漢文科 教授·學習 方案 研究」(홍성욱, 제21호), 「中學校 漢文 教科書 學習 模型에 대한 研究」(尹采根, 제26호), 「實行 研

究' 活性化를 위한 漢文教育 內容 分析-教授·學習 分野를 중심으로」(백광호, 제27호), 「漢文科 教授-學習 方法의 體系化 方案」(金載瑛, 제29호), 韓文과 통합 논술 수업 사례 연구」(權赫鎭, 제30호), 論술 敎育을 시도한 高等學校 韓文 수업에 관한 사례 연구」(金鍊秀, 제30호), 「授業 改善을 위한 高等學校 漢文 敎師의 自己 授業 分析」(白光鎬, 제30호).

* 한시분야 :

「近體詩의 4단 구성과 그림으로 하는 漢詩 수업」(이태희, 제11호), 「漢詩 敎育의 目的과 效率의 指導 方法 研究」(宋永日, 제20호), 「認知的 徒弟 방식의 漢詩 敎授-學習 模型의 실제 적용 양상에 관한 연구」(金鍊秀, 제27호), 「ARCS를 적용한 漢詩의 敎수-학습 방법」(崔閔鎔, 제27호)

이 밖에도 학위논문이나 서적으로 박유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敎수-학습 모형을 구안하는 실험을 한 결과, 생활 한자어 학습은 소집단 활동을 통한 단문 짓기 敎수-학습 모형이, 성어 학습은 개별 활동에 의한 단문 짓기 敎수-학습 모형이, 한시 학습은 소집단 활동에 의한 한시의 해석과 감상이, 문장 학습은 시청각 자료에 의한 敎수-학습 모형이 각각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켰음을 밝혔다.¹⁷⁾

김동규는 Powerpoint와 Web을 활용한 수업을 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켰음을 밝혔다.¹⁸⁾

송병렬은 바람직한 敎수·학습방법으로 敎수자 주도의 敎育과정과 敎수·학습, 일상에서 찾은 창의적인 수업, 학습자 주도의 발표 수업, 전공 지식이 잘 적용된 敎수·학습방법을 소개하면서 實例를 제시했다.¹⁹⁾

-
- 17) 박유희, 「한문과 敎수-학습 방법의 효율성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 성균관대 敎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8) 김동규, 「Powerpoint와 Web을 이용한 한문과 敎수-학습 방법」, 단국대 敎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9) 송병렬, 「바람직한 한문과 敎수·학습방법의 모색」, 『새로운 한문敎育의 지평』, 문자향, 2002, pp.33-59.

김연수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하나인 認知的 徒弟이론을 근거로 漢詩 教授-學習 模型을 설계하여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관찰과 교사와 학습자의 면담, 학습자가 작성한 개인별·모둠별 학습 활동지와 비평적 에세이 등을 수집 분석한 결과, 이모형은 수행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모형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적용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취감 및 자신감과 의욕을 갖게 되었고,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며, 한시 텍스트 내면화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문이나 한문지식 영역의 지도에 있어 한 모형을 구안한 실험이 한문학습에 효과적이거나, 교육학 이론을 한문과에 맞게 구안하여 적용을 한 결과, 기자재의 사용으로 수업의 극대화를 이룬 사례, 그림의 활용, 제 영역에 알맞은 교수법 등 모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 효율적인 수업을 할까?’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식과 인성 교육에 있어 눈높이에 맞춘 개인별 교수-학습 방법은 적용된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서당식 교수-학습 방법과 앞에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접목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면 학습자들을 좀더 교육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가르치는 데는 왕도가 없다. 다만 왕도로 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다. 교수·학습 방법은 개인에 따라, 또는 학습목표, 내용,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

학습 내용과 학습대상에 따라 순간순간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20) 金鍊秀, 「漢詩 教育에서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V. 맺음말

지금까지 서당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당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面·洞·里 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교육기관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교육적 자생력을 지니고 이어오고 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의 교육방법은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눈높이를 맞추어 일대일로 완전학습 모형을 취하였으며, 이는 서당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만들어주고, 학습자의 길잡이, 조언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공교육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서당식 교육방법을 응용하는 것도 교육적 의의가 있다.

현재의 교육구조는 개인의 수준이 무시되는 획일적 교육방법이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이런 상황에 학생들을 수업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한 방안이 서당식 교육방법이 아닌가 한다.

<參考 文獻>

徐兢, 『高麗圖經』.

李象秀, 『晤堂集』.

劉昫 撰, 『舊唐書』.

김동구, 「조선시대 서당에서의 놀이가 갖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동규, 「Powerpoint와 Web을 이용한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승현, 「서당식 교육모형의 학교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2003.
- 金鍊秀, 「漢詩 教育에서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영옥, 「서당교육의 분석적 고찰」,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용동,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유희,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송병렬, 『새로운 한문교육의 지평』, 문자향, 2002.
- 송영일, 『漢字 教授 學習 方法과 評價論』, 도서출판 장서원, 2001.
- , 『漢文教育論』, 도서출판 장서원, 2002.
- 이규범, 「서당의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李星鎬, 『教授方法論』, 학지사, 2002.
- 崔閔鎔, 「ARCS모형을 適用한 漢文科 教授-學習 方法 研究」,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1994-2008), 『漢字漢文教育』 第一輯~二十輯,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 韓國漢文教育學會(1997-2008), 『漢文教育研究』 第9號~30號, 韓國漢文教育學會.

Abstract

Educational Method and Modern Significance in Seodang(書堂)

/ Choi Yun Yong*

The educational method in Seodang(書堂-private village school) during Joseon Dynasty assumed the one-on-one perfect learning model in line with the eye level according to an individual's ability in students. This implies that Seodang played a role of a leading star, adviser, and guide in learners while making a place of experience that the potentiality of each individual in students can be exerted.

In the reality that the faith in public education is being collapsed, even the application of educational method to reality in Seodang ha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Seodang is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tages, which was established in units of Myeon(面)·Dong(洞)·Ri(里) by being become the main body in noble family(士族) and the people, which did put the living ground in the country-village society. This Seodang has been followed with having educational viability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to the present.

Seodang(書堂-private village school) is composed of village schoolmaster(訓長), Jeopjang(接長), and schoolchildren(學童). And, the learning was performed mainly by the individual teaching method with deciding on scope in line with learners' personal difference and its ability. Accordingly, even if having entered Seodang equally,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progress rate were varied according to its ability, thus the non-school year system was

* Kongju National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 chyy60@hanmail.net

operated by level.

The educational contents in Seodang comprise three courses(三教科) that are Gangdok(講讀-reading with comments) of grasping the meaning in sentence by reading and reciting, Jesul(製述), which is activity of composing poems, and calligraphy(習字) in writing. And, even other than this, the field except reading with comments was taught through a play.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in Seodang include lecture(講), Gaengshingobeop(更辛苦法), Sunseungcheopbeop(循繩尺法), and educational method through a play. Lecture(講) is a method of question and answer. Gaengshingobeop(更辛苦法) is a method that allows a context to be learnt oneself with instruction by level. And, Sunseungcheopbeop(循繩尺法) is a perfect learning method through repetition. In addition to this, a play led to understanding about a systematic conception and grade on a government post, correlation in titles, rank, scenic spots and places of historic interest, climate and products, and figures. And, a play led to fostering the expressive power, a belonging sense to group, cooperative mind, combination power, law-abiding property, and local patriotism.

The current educational structure is the monolithic educational method or the education of excessively centering on entrance examination, in which an individual's level is ignored. In this situation, one method, which draws students to a place of teaching, might be probably the educational method in Seodang.

Even given examining theses on teaching-learning that were reported in academic circles, those are researches that focused mainly on efficiency in teaching. Thus, it is rare in the teaching-learning method by individual that focused on eye level in knowledge and human nature. Accordingly, even the integration in the educational method in Seodang and the teaching-learning method, which was reported to be efficient in modern times, can be said to

have educational significance.

There is no royal road to teaching. Still, there is just effort by doing the best for going to the royal road.

【Key words】 Educational method in Seodang(private village school), Education through lecture(講), Gaengshingobeop(更辛苦法), Sunseungcheokbeop(循繩尺法), and a play, Efficient learning method

투고일 : 10월 28일, 심사일 :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12월 2일